韓國産業應用學會論文集, 제13권, 제3호, 153-160, 2010.08
J.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Application, Vol.13, No.3, 153-160, Aug, 2010

산업체와 학생의 세무학 교육 인식 비교-K대학의 사례
Difference of Perspectives between Companies and Students for Tax Science Education-Focused on K University

최임수[1‡]
Im-Soo Choi[1‡]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difference of perspectives between companies and students for tax science education in order to present plans to enhance the efficiencies of tax science education. Analyses were made on a total of 93 subjects composed of companies and seniors majoring in tax science at the department of taxation in K University. After analyzing the perspectives on the need for the current curriculum,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overall average between companies and students. For the need for revising the education course, there was a difference in perspective between the two groups at about 1%.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for perception on theoretical, lab and on-site experience education, but there was a high difference from the current education course for its perception level. For certification instructions there was a noticeable difference between companies and students at about 1%, and companies responded that guidance on computerized taxation accounting was needed, while students stated that they needed guidance on financial administrator certification. In brief,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shows that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education on tax sciences, the rapidly changing educational environment must be reflected, and the demands of companies and students.

Keywords : Tax Science Education, Curriculum, Requisites, Electives, Difference of Perception

1. 서 론

세무학은 조세를 적정하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희열, 1999), 사회현상이 복잡해지고 국제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관계로 경상계열학과의 교과목으로는 세무전문인력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에 각 대학의 세무학과에서는 경제학적 이론으로 접근하는 조세정책, 정부와 국민 간의 조세관계를 법학적 이론으로 접근하는 조세법, 조세법에 근거하여 회계학적으로 조세부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세무회계 등에 관한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교육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요구하고 있는 세무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그 교육의 목표를 두고(정연식, 2008) 교육을 실시하고 있

[1]정회원, 건양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경영학박사,
E-mail : ischoi@konyang.ac.kr

[1]Department of Taxation, Konyang University, Professor, Ph.D.

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설된 교육과정이 수요자인 산업체와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는가에 있다.

전통적으로 대학의 교육은 수요자보다는 공급자측면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져 왔다. 그런 관계로 세무학 교육에 있어서도 수요자, 고객의 입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안태식(1993)은 회계학 교육이 수요자, 즉 고객 지향적이어야 한다고 하였고, 이대선 외(1996)는 회계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명곤(1996)은 회계학 교육의 1차적인 고객은 학생이며, 2차적인 고객은 기업과 회계서비스산업으로 보고 고객의 만족을 위한 교육방법으로 컴퓨터실습, 현장실습 등을 들고 이러한 시스템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항규(1998)는 세법교육으로 세법이론교육과 현장연계 실습교육체제 기틀을 마련을 그리고 류장렬(2003)은 전문대학 세무회계 전공자들의 차별화된 전문성 교육을 위하여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세무학 교육은 여전히 급변하는 환경과는 달리 학생이나 산업체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운영되고 있음을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이다(최임수, 2004, 2005).

이러한 시점에서 세무학 교육이 수요자에게는 어떻게 투영되고,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가를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세무학 교육에 대한 산업체와 학생 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여 세무학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석대상으로 K대학교 세무학과의 교육과정을 활용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K대학교 세무학과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제3장에서는 연구를 설계하며,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석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미래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

2. K대학교 세무학과 교육과정의 분석

현재 전국적으로 세무학과가 개설된 대학교는 건양대학교, 계명대학교, 남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및 창원대학교 등이 있다. 각 대학별로 대학의 여건과 특성화 전략 그리고 학과의 목표 등에 따라 상이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K 대학교의 경우에는 대학의 취업특성화 정책 및 학과의 방침에 따라 타 대학과 학사운영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바, 세무학 교육에 대한 산업체와 학생 간의 인식[1] 차이를 분석함에 있어서 좋은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K대학교 세무학과는 1995년에 개설되어 올해로 15년이 된 학과로 2009년 말 현재 교육과정은 Table 1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 학과지정선택 교양과목으로 6개 교과목, 12학점이 개설되어 있으며, 이는 학과의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것으로 필수 수강 교과목이다.

둘째, 전공은 필수 교과목인 기본과정으로 9과목, 31학점이 개설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24학점 이상을 수강하여야 하고, 선택 교과목인 심화과정은 26과목, 78학점이 편성되어 있다. 여기에 더하여 학생의 선택에 따라 4학년 2학기 때 현장실습을 선택할 수 있는 교과목이 학기제 형태로 개설되어 있다. 졸업이수 학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공에서 7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셋째, 현장학기제를 제외한 전공 교과목 35개 중에서 실습 교과목은 4개이고, 나머지 31개는 이론 교과목이다.

한편, K대학교 교육과정 및 이의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및 학과 차원에서 개설한 교양 및 학과지정선택교양과목이 32학점을 차지하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전공교과목의 수가 적게 되어 학생들의 교과목에 대한 선택의 폭이 제한되게

1) 산업체와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는 배경으로 교육과정은 학생이 입학하여 졸업할 때까지의 학습하게 될 모든 내용을 개괄적으로 제시한 것이므로, 이러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대학 교육의 수요자인 산업체와 학생들이 만족하게 될 경우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가 제고될 뿐만 아니라 산업체는 재교육을 위한 별도의 예산 지출 없이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출발한 것이다.

된다.

둘째, 이론 교과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공 교과목의 88.6%가 이론 중심의 교과목으로 되어 있어 이론과 실무의 조화가 어렵다.

Table 1. Curriculum of department of taxation of K University

구 분		학점	이수 학기	기본 /심화	이론 /실습
학과지정선택 교양과목 (필수)	초급한자	2	1-1	-	이론
	중급한자	2	1-2	-	이론
	초급토익연습	2	2-1	-	이론
	중급토익연습	2	2-2	-	이론
	일본어회화	2	3-1	-	이론
	중국어회화	2	3-2	-	이론
전공 과목	회계원리	4	1-1	기본	이론
	민법총칙	3	1-1	기본	이론
	세법총론	3	1-2	기본	이론
	기업회계기준해설	3	1-2	심화	이론
	재무회계	3	2-1	기본	이론
	소득세법	4	2-1	기본	이론
	간접세법	4	2-1	기본	이론
	세무영어	3	2-1	심화	이론
	재산법	3	2-1	심화	이론
	법인세법 I	4	2-2	기본	이론
	중급회계	3	2-2	심화	이론
	전산회계실무	3	2-2	심화	실습
	세무회계원리	3	2-2	심화	이론
	상법	3	2-2	심화	이론
	경제학원론	3	2-2	심화	이론
	전산세무실무	3	3-1	심화	실습
	경영학원론	3	3-1	심화	이론
	원가회계	3	3-1	기본	이론
	법인세법 II	3	3-1	기본	이론
	지방세법	3	3-1	심화	이론
	재정학	3	3-1	심화	이론
	직접세법	3	3-2	심화	이론
	관리회계	3	3-2	심화	이론
	어음수표법	3	3-2	심화	이론
	법인세조정실무	3	3-2	심화	실습
	재무관리	3	3-2	심화	이론
	세무관리	3	4-2	심화	이론
	국제조세론	3	4-2	심화	이론
	회계감사	3	4-1	심화	이론
	세법판례연구	3	4-1	심화	실습
	세무학연구	3	4-1	심화	이론
	세무회계	3	4-1	심화	이론
	조세정책론	3	4-1	심화	이론
	재무제표분석	3	4-2	심화	이론
	비교조세법	3	4-2	심화	이론
	현장실습	18	4-2	심화	이론

셋째, 강의실 강의 중심으로 되어 있다. 모든 교과목의 강의공간이 대학 내 강의실로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현장의 변화와 느낌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비단 K 대학의 경우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현상은 아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공무원 등을 양성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편성하기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편성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2)]

3. 연구의 설계

3.1 연구의 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세무학 교육에 대한 산업체와 학생 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여 세무학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K대학교 세무학과의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접근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산업체와 학생 간에 현행 개설된 교과목의 계속 유지 필요성,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 이론, 실습 및 직업현장체험교육의 구성 및 자격증 지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는 Fig. 1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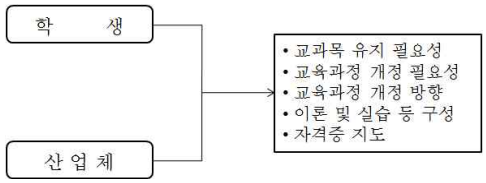

Fig. 1. Framework for the study.

3.2 설문지의 설계

설문지는 현행 개설된 교과목의 전공학습에의 필요성, 학과지정선택 교양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외국어 교과목의 필요성,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 교육과정 개정 방향, 이론, 실습 및 직업현장체험교육의 구성 비율 그리고 자격증 지도에 대한 인식 등 총 6개로 구성되어 있

2) 일례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의 경우 대부분 교과목이 이론중심으로 되어 있고, 계명대학교와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는 실습 교과목을 타 대학에 비하여 많이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학 모두 현장중심의 교과목을 편성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 주된 요인 중 하나는 학과의 교육목표가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공무원 등 전문자격증 취득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 특히 이론, 실습 및 직업현장체험교육의 구성 비율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는 직접 그 비율을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자격증 지도에 있어서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직접 선택하도록 고려하였다. 또한 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있어서는 Likert 7점 척도('대폭 축소'는 1점, '소폭 축소'는 3점, '현행 유지'는 4점, '소폭 확대'는 5점, '대폭 확대'는 7점)를 그리고 이 외의 경우에는 5점 척도(아주 반대 '1', 보통 '3', 매우 동의 '5')를 이용하였다.

3.3 자료의 수집

설문조사는 K대학교 세무학과 4학년 산업체와 학생을 대상으로 2009.11.23부터 2010.1.14까지 직접 및 e-메일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 결과, 93명으로부터 응답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모두 분석에 반영하였다.

4. 실증분석 결과

4.1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Table 2와 같이 93명 중 학생이 53명으로 57%를, 반면에 산업체는 40명으로 43%를 차지하고 있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amples

구 분	표 본 수	비율(%)
4학년	53	57.0
산업체	40	43.0
합 계	93	100.0

4.2 세무학 교육에 대한 산업체와 학생 간 인식 차이 분석

(1) 전공 교과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먼저 현재 개설된 35개 교과목(Table 1 참조)이 전공학습에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전체 평균을 가지고 산업체와 학생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Table 3과 같이 10% 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를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산업체와 학생 간에는 개설된 전공 교과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동일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3)]

Table 3. Perspectives on the need for the current major subjects

집 단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도
학 생	48	3.7417	.47375	0.148	0.882
산업체	36	3.7262	.47222		

(2) 외국어 교과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K대학교 세무학과에서는 전공 교과목 이외에 교양과목으로 학과지정선택 교양과목제도를 두어 초급한자, 중급한자, 초급토익연습 등 총 6개 교과목(Table 1 참조)[4)]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전공 교과목과 동일하게 외국어 교과목에 대하여도 학생과 산업체 간에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한 결과, Table 4와 같이 6개 외국어 교과목 중에서 초급한자 교과목에 대하여만 5% 수준에서 산업체와 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산업체가 학생에 비하여 이 교과목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4. Perspectives on the need for the current foreign language subjects

구 분	집 단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도
초급한자	학 생	52	3.62	.844	**-2.261**	**0.026**
	산업체	39	4.03	.873		
중급한자	학 생	53	3.53	.890	-0.467	0.642
	산업체	39	3.62	.877		
초급토익연습	학 생	53	4.08	.851	1.167	0.246
	산업체	38	3.87	.811		
중급토익연습	학 생	53	4.04	.876	1.653	0.102
	산업체	38	3.74	.828		
일본어회화	학 생	53	2.75	1.072	-1.601	0.113
	산업체	39	3.10	.968		
중국어회화	학 생	53	2.77	1.120	-1.35	0.180
	산업체	39	3.08	.984		
전 체	학 생	52	3.471	.572	-0.708	0.481
	산업체	37	3.557	.576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한자 활용은 줄어들고 있지만 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한자의 활용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기업에서는 인재채용 시 한자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점을 부

3) 35개의 전공 교과목 중에서 민법총칙, 경영학원론, 법인세법Ⅱ, 세법총론, 간접세법, 원가회계 및 세무학연구 등 7개에 있어서는 5% 그리고 법인세조정실무의 경우에는 1% 수준에서 산업체와 학생 간에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4) 교과목당 2학점으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1개 교과목씩 개설되어 있다.

여하거나 자체적으로 한자시험을 실시하고 있음을 볼 때 산업체에서 학생보다 이에 대한 인식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3)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여기에서는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산업체와 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검정해 보고자 한다. 인식정도는 '교육과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설문에 대하여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산업체와 학생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t-값이 2.826이며 1% 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그 인식수준은 학생이 산업체보다 높았다.

학생들은 산업체와는 달리 직접적으로 4년 동안 사전에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라 학습을 해 왔고 자신의 진로계획에 맞춰 교과목을 수강하면서 개설된 교과목들이 자신의 생각과 동일하게 또는 상이하게 많거나 적게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은 산업체에 비하여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반응이 산업체에 비하여 빠르거나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5)]

Table 5. Perspectives on the need for revising the current curriculum

집 단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도
학 생	51	3.73	.750	**2.826**	**0.006**
산업체	39	3.26	.818		

한편, 학생들의 경우 교육과정을 개정하여야 하는 이유로, Table 6과 같이 28%가 자신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과목이 중복 되어서(18.0%),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 해서(18.0%), 전공의 특성화를 추구하지 못 해서(16.0%),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12.0%)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산업체의 경우에는 37.5%가 수요자(예: 기업체 등)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 해서라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공의 특성화를 추구하지 못 해서(21.9%),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18.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교육과정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함으로써 전공의 특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Table 6. Reasons for revising the current curriculum

구 분	학생	산업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6 (12.0)	6 (18.8)
자신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안 되므로	14 (28.0)	1 (3.1)
교과목이 중복 되어서	9 (18.0)	2 (6.3)
전공의 특성화를 추구하지 못 해서	8 (16.0)	7 (21.9)
수요자(예: 기업체 등)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 해서	9 (18.0)	12 (37.5)
국제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 해서	0 (0.0)	1 (3.1)
교육과정이 적절하게 구성이 안 되어서	3 (6.0)	0 (0.0)
수준별로 구성이 안 되어서	1 (2.0)	2 (6.3)
기타	0 (0.0)	1 (3.1)
합 계	51 (100)	32 (100.0)

또한, K대학교 세무학과의 교육과정의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분석한 결과, Table 7에 제시된 것처럼 총 6개 항목 중 2개 항목에서 산업체와 학생 간에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실습 교과목 및 학기 중에 실시하는 직업현장체험교육 교과목의 신규 개설에 대하여도 산업체의 인식수준은 모두 5.40으로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6)] 산업체는 전공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과 직업현장체험교육[7)]을 반영한 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학생의 경우 평균값이 3.73인 반면에 산업체는 3.26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교육과정의 개정에 대한 요구수준이 낮게 나타난 바, 이는 현행의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이미 편성된 교육과정으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6) 산업체의 평균이 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난 바, 산업체가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학생보다 낮은 반응을 보였으나, 개별 항목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현행 교육과정상 개설된 현장실습 교과목으로는 전산회계실무, 전산세무실무, 법인세조정실무 및 세법판례연구 등 총

Table 7. Perspectives on the direction of revision for the current curriculum

구 분	집 단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도
이론 교과목	학 생	53	4.91	1.497	-0.854	0.395
	산업체	40	5.15	1.167		
실습 교과목	학 생	53	4.85	1.622	**-1.755**	**0.083**
	산업체	40	5.40	1.317		
직업현장 체험 (학기중)	학 생	53	4.79	1.610	**-1.965**	**0.052**
	산업체	40	5.40	1.277		
직업현장 체험 (방학중)	학 생	53	4.87	1.687	-1.149	0.254
	산업체	40	5.23	1.310		
자격증 취득분야	학 생	52	5.33	1.593	-0.494	0.622
	산업체	40	5.48	1.281		
현장학기제 강화	학 생	53	5.81	6.415	0.553	0.581
	산업체	39	5.23	1.495		

(4) 이론, 실습 및 직업현장체험교육에 대한 인식

현행 K대학교 세무학과의 교육과정을 볼 때 전공교과목 중 이론교과목 대 실습교과목의 비율을 보면 이론교과목이 88.6%로 실습교과목 11.4%보다 8배에 육박한다. 학과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학생들과 산업체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전체 전공 교과목을 구성할 때 이론 대 실습 등의 비율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8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바, 이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 실습 및 직업현장체험교육의 비율 각각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산업체와 학생 간에는 10% 이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학생은 산업체에 비하여 이론비율과 실습비율에서 약간 높은 반응을 보인 반면에 산업체는 직업현장체험교육 비율에서 다소 높은 값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산업체는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중요시 여기고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이론과 실습과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이론 : 실습 : 직업현장체험교육의 비율을 50 : 30 : 20으로 간주하고 현행 전공 교과목의 수가 35개이므로 이를 환산하면 17 : 11 : 7개 교과목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바, 이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그 실현가능성에 대하여는 많은 한계가 존재하며, 대학교육의 수행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신청자에 한하여 4학년 2학기에 실시되는 현장학기제를 제외하면 모든 교과목의 운영이 교내 강의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학생들이 강의실과 현장실무를 접목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정규교과나 비정규교과를 통하여 통로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Table 8. Perception on theoretical, lab and on-site experience education

구 분	집 단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도
이론비율	학 생	53	50.19	16.378	0.694	0.490
	산업체	40	47.50	19.936		
실습비율	학 생	53	29.53	9.264	0.606	0.546
	산업체	40	28.25	11.068		
직업현장 체험교육 비율	학 생	53	20.28	11.112	-1.483	0.142
	산업체	40	24.25	13.893		

(5) 자격증 지도에 대한 인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체와 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의 개설에 대하여 7점 중 5.39의 평균을 보였다. 이는 자격증이 실무를 수행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뿐 아니라 학생 개인의 기본소양 및 전공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을 제공한다. 이런 관점에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도가 필요한 바, 산업체와 학생별로 학과에서 어떤 자격증을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반응을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4개 교과목이 있으나, 직업현장체험교육 관련 교과목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4학년 2학기에 있는 학기제로 운영되는 현장실습은 대학차원에서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전 학과에 개설되어 있어 이를 신청하고 관련 조건을 충족할 경우 pass 학점으로 18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에 개설된 교육과정대로 정상적으로 수강신청을 하면 된다.

Table 9와 같이 자격증 지도에 대한 산업체와 학생 간 반응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관측빈도와 기대빈도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학생들은 재경관리사, ERP, 전산세무회계 순으로, 반면에 산업체는 전산세무회계, 세무회계, ERP·토익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전체에 있어서는 전산세무회계, ERP, 재경관리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8)]

학생들은 삼일회계법인에서 실시하는 국가공인 자격증인 재경관리사를 취득하는 것이 전산세무회계나 세무회계보다 취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취득이 용이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산업체에서는 오히려 전산세무회계를 어떤 자격증보다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바, 산업체와 학생 간에 자격증에 대한 관점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Table 9. Perception on certification instructions

구 분		관측빈도(기대빈도)		전 체
		학 생	산업체	
자격증명	전산세무회계	10 (17.7)	19 (11.3)	29
	세무회계	3 (6.7)	8 (4.3)	11
	ERP	15 (11.0)	3 (7.0)	18
	재경관리사	16 (10.4)	1 (6.6)	17
	토익	6 (5.5)	3 (3.5)	9
	한자	2 (1.2)	0 (.8)	2
	사무자동화	1 (.6)	0 (.4)	1
전 체		53	34	87
통계량 및 유의도		χ^2(df=6) = 27.461 α=0.000		

5. 결 론

세무학 교육에 대한 산업체와 학생 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여 세무학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K대학교 세무학과의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세무학과 4학년 산업체와 학생 등 총 93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교과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현재 개설된 35개 교과목에 대하여 전체 평균에서는 산업체와 학생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개별 과목별로 분석한 결과, 8개 교과목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했다. 또한 학과지정선택 교양과목에 대하여는 초급한자에 있어서만 차이를 보였다.

둘째,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에 있어서 1% 수준에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고, 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대한 8개 항목 중 2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특이점으로 이들 항목에 있어서 산업체의 인식수준이 학생보다 모두 높았다.

셋째, 이론, 실습 및 직업현장체험교육에 대한 인식에서는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이러한 인식수준은 현행의 교육과정과는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

넷째, 자격증 지도에 대하여는 1% 수준에서 산업체와 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특히 산업체는 전산세무회계를, 반면에 학생들은 재경관리사를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응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도출된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목의 유지 필요성, 개정 방향 및 이론과 실습 등의 구성 등에 있어서 응답자의 의견이 높게 나온 항목에 대하여는 이를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이를 운영할 때도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방법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응답자의 의견이 낮게 나온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우선 해당 교과목을 폐지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수요자의 반응이 높게 나왔을지라도 교육목적과 교육목표 달성에 반드시 필요하고, 나아가 전공능력 배양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다른 차원에서 추가적인 분석을 할 뿐만 아니라 학과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것의 폐지 또는 유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교육과정 편성의 합리성과 적절성이 무엇보다도

8) 자격증으로 FP와 기타 등도 제시되었으나 이에 대하여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분석에서 제외함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생, 산업체 및 교수 등이 참여하고, 여기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의 세무학 교육의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의 교육과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현행 대부분 대학의 교육과정이 전문자격증이나 공무원시험 대비 등에 초점을 맞춰 운영되고 있으나, 모든 학생들이 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이 일반 회사로 취업을 하게 되므로 수요자인 산업체와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개편되어야 하고, 그 속에서 차별화를 위한 교과목이 전략적으로 개설되어야 한다.

둘째, 현장교육의 강화이다. 대학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론과 실무의 조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 현재의 대부분의 모든 대학의 교육과정이 이론중심으로 치우쳐 있는 관계로 현장의 요구와 급변하는 학문의 변화를 수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직무중심의 교과목을 추가적으로 편성하고, 실질적인 교과목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현장지도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실습의 평가관리 체제를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이다. 대부분의 교과목을 담당교수가 모두 담당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현장중심의 교과목을 편성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체 인사를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대신에 대학에서는 교수의 전문지식을 산업체에 제공하고, 관련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어야 한다. 대학과 산업체가 함께 운영하는 블록강의나 분담강의 등을 세무학 교육에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수요자 맞춤형 세무학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DACUM(Developing a curriculum)과 같은 기법 등을 활용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세무학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을 반영하고, 교육과정 편성에도 수요자인 산업체와 학생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교육을 수행해야 함을 보여주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 기존의 관련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행한 관계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먼저 연구대상으로 K대학교 세무학과 한 개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고, 표본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세무학 교육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나 교육과정만을 가지고 분석한 관계로 연구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석대상 학과와 표본수를 늘이고 교수학습방법,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석할 경우 연구결과가 일반적 지지를 얻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1) 류장렬, 전문대학 세무회계 전공자의 현장실습 효과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4, 1,** 265, (2003)
2) 서희열 : 세무학연구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10,** 271, (1997)
3) 서희열 : 세무학의 정립과 세무학과 교과과정 개편시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14,** 205, (1999)
4) 안태식 : 고객만족회계, *회계저널,* **1,** 115, (1993)
5) 이대선 · 고완석 · 안태식 · 최관 : 회계원론 교육의 개선방안, 회계저널, **5, 1,** 89, (1996)
6) 이명곤 : 신경영기법을 이용한 회계학교육의 경쟁전략, 회계저널, **5,** 169, (1996)
7) 이항규 : 대학의 세법교육개선방향 : 국세행정에 종사할 세무전문인력 교육을 중심으로, *학술연구논문집,* **11,** 국립세무대학 조세문제연구소, pp.77-85, (1998)
8) 정연식 : 한국경영학교육인증제와 세무학교육, *세무와회계저널,* **9, 2,** 127, (2008)
9) 최임수 : 수업효율성요인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 세무회계전공자를 중심으로, *회계연구,* **9, 2,** 219, (2004)
10) 최임수 : 효율적 회계교육 : 교수학습방법을 중심으로, *회계연구,* **10, 2,** 69, (2005)

(접수:2010.05.31, 수정:2010.07.22, 게재확정:2010.08.20)